

건강 칼럼

시력교정술 고민된다면? 각막 손상 등 고려한 수술법 선택해야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라섹, 라식 등 시력교정술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 입학 전 불편했던 안경을 벗고 외모변신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



이승원

부평성모안과 원장

수험생은 시력교정술을 받기 전 반드시 눈의 성장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눈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성장을 멈춘다. 하지만 만 18세 이후에도 시력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의 눈은 사물로부터 반사한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을 맺게 한다. 이러한 상을 전기적 신호로 전환해 뇌에 전달하면 사물을 볼 수 있게 된다. 사물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적절하게 굴절돼 망막의 중심 오목에 하나의 초점을 맺어야 한다.

시, 난시 등으로 인한 시력저하가 발생한다. 시력교정술은 굴절이상을 교정해 상이 제대로 맺힐 수 있도록 교정해주는 수술이다. 국내에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난 만큼 수술방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다양해졌으며 개인의 시력, 안구상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수술 진행이 가능해졌다.

라섹수술은 각막절편을 만드는 대신 각막상피를 벗겨낸 뒤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한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각막이 지나치게 얇거나 -9D(디옵터)이상의 초고도근시, 난시가 있다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부작용 우려가 높아 수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초고도근시는 안구가 앞뒤로 길게 지라면서 눈의 구조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각종 안구 합병증 발생 위험성도 증가한다.

수술 후 라식, 라섹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력, 안구상태, 각막상태 등의 정밀검사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시력교정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초고도근시의 라섹수술은 사전 검사 결과가 안정될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 반복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각막 내부 및 외부 지형도, 생체역학적 요소, 망막, 시신경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르헨티나 득점에 환호하는 거리 응원 팬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와 폴란드의 조별리그 C조 3차전 경기가 있는 11월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거리 응원을 하던 축구 팬들이 아르헨티나의 두 번째 득점에 환호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폴란드를 2-0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장-피에르 “IRA 혜택, 유럽 기업에도 돌아가”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11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미국을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IRA 관련 우려에 대해 “IRA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유럽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 사랑의 성금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 불법촬영감시단이 최근 전주시 사랑의 성금 105만 원을 기탁했다. 100명으로 구성된 불법촬영감시단은 공원 청소와 공원 내 화장실의 불법 촬영을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참여자 가운데 인후2동 김용하 팀장 등 30명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급여를 모아 성금을 마련한 것이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전달했다. 주변을 돌아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실천이 아름다운 삶이다. 저소득층 지원과 지역 내 기부 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모금된 성금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정을 전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람이 많아 아름다운 사회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기부를 실천 해준 어르신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말연시 및 구경에도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화물연대 2차 협상 결렬

정부와 화물연대가 11월 30일 두 번째 교섭을 가졌지만 협상은 불과 40분 만에 결렬됐다. 정부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회부터 업무 개시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차 교섭에 이어 두 번째로 마주 앉았다. 하지만 교섭은 불과 40분 만에 결렬됐다. 회의장 안에서는 물론 협상이 끝난 뒤에도 고성은 이어졌다. 노조는 더 이상 정부가 나서서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대화 마치고 가라고 했다. 양측은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 국민을 불모로 집단 운송 거부를 해서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분 별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면담을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를 해야 할 곳은 정부와 국회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권한 있는 사람이 교섭에 나와 대화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멘트 운송업자들은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멘트협회를 비롯한 6개 업종별 화주 단체들은 산업계 피해가 극심하다며 파업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까지 사전 협상 준비조차 없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준비 없는 정부 대처에 국가 경제 위기만 위기가 커지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graphic with a boat on waves and a sun/moon.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